광주시향, 시청·군부대·대학 '찾아가는 음악회'

■ 시립 예술단체들 하반기 공연

무용단 '실비아'·국극단 '유관순' 기대

2009년 상반기만큼 광주시립예술단체에 대한 관심이 높았던 적은 없다. 올해 새롭게 수장을 맞은 교향악단, 무용단, 국악관현악단은 참신한 무대로 각광을 받았고, 합창단과 국극단도 신작을 선보이는 등 활발한 활동을 펼쳤다. 8월까지 휴지기를 갖고 9월 무대를 준비중인 광주시립예술단체들의 공연 일정을 소개한다.

▲교향악단

9월에는 광주문예회관 대극장을 벗어나 다양한 곳에서 공연을 갖는다. 5일에는 광주시청 야외음악당에서 '쉘 위 댄스'라는 주제로 음악회를 연다. 클래식 작품 가운데 '춤곡'만을 모아 만들어가는 무대로 뮤지컬 배우가 출연한다.

25일에는 공연장을 찾기 어려운 군 장병들을 직접 찾아가 장성 육군기계화 학교에서 무대를 꾸미며 전남대 공연도 구상중이다.

11월 6~7일 열리는 정기공연은 유명 오페라 하이라이트를 묶은 '오페라 콘체르탄테'다. 독일 등에서 정상급 성악가를 초청해 시립합창단과 함께 무대를 꾸민다.

10월 16일 정율성음악제에서는 티모르 올리브 샤딕(독일 다름슈타트 국립극장 수석 지휘자 역임)의 지휘로 드보르작의 '신세계 교향곡', 멘델스존의 '바이올린 협주곡'(협연 세르게이 크라브첸코 차이코프스키음악원 교수)을 들려준다.

9월 18일(객원지휘자)과 11월 27일, 12월 31일에도 정기 공연이 예정돼 있으며 다음주 중으로 정기 공연 레퍼토리를 확정할 예정이다.

▲무용단

기대가 되는 건 오는 9월 25~26일 이틀간 광주문예회관 대극장에서 열리는 정기 공연 '실비아'다. 우리나라에서 한 차례도 공연 된 적 없는 '실비아'는 그리스 신화의 여신을 소재로 한 작품으로 1876년 프랑스에서 초연됐었다.

9월 2일에는 '프랑스 발레의 밤'이라는 타이틀로 '고집쟁이 딸', '해적', '파우스트', '디아니의 님프' 등 18세기 프랑스 낭만 발레의 진수를 맛볼 수 있는 갈라 공연을 준비중이다.

10월에는 화정초, 금부초, 세종고를 직접 방문, '찾아가는 공연'을 진행하며 12월 18일에는 광주시향과 함께 무용단의 대표 레퍼토리인 '호두까기 인형'을 선보인다.

▲합창단

9월 29일 열리는 정기공연은 '칸탄테 도미노' 등 무반주 합창곡 무대로 꾸미며 10월 23~24일에는 '해설이 있는 발레-마술피리'를 무대에 올린다. 올 마지막 공연은 헨델의 대작 '메시아'(12월 5일)다.

하반기에는 외지 공연도 진행한다. 9월4일에는 고양문화재단 주최로 올해 처음 열리는 제1회 합창페스티벌에 참여하며 10월에는 서울 예술의 전당의 전국시립합창제 무대에 선다.

광주시립국악관현악단 공연.

광주시립무용단의 '고집쟁이 딸'.

▲국악관현악단

9월 16일 정기공연은 협주곡의 밤으로 진행된다. 피아니스트 동수정씨가 민요 '아리랑'을 새롭게 편곡한 곡을 들려주며 대금·가야금 연주자가 함께 참여한다.

10월 29일에는 '청소년협주곡의 밤'을 주제로 공연을 가지며 12월 17일에는 송년음악회를 준비하고 있다.

독특한 무대로는 11월 25~26일 두차례 열리는 '창작음악의 밤'을 꼽을 수 있다. 허형만씨 등 지역 출신 시인들의 작품에 가락을 부친 곡들을 선보이며 광주시립합창단과 판소리합창단 등이 함께 무대에 선다.

▲국극단

하반기 첫공연으로 9월 18일 '한가위 국악 한마당' 공연을 진행하며 11월 11일~12일 정기공연은 올 상반기 무대에 올려 많은 화제를 모았던 '창극-열사 유관순'을 앙코르 공연한다. 이 작품은 10월 16~17일에는 천안 봉서홀에서도 공연된다.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1Q84' 25일 출간

'하루키 신드롬' 재연될까

국내 판권 10억 화제

일본서 100만부 돌파

일본에 이어 한국에서도 '하루키 신드롬'이 재연될까?

일본의 인기작가 무라카미 하루키(村上春樹 · 60)의 새 장편소설 '1Q84'(전 2권)가 일본에서 폭발적인 인기를 모으고 있는 가운데 오는 25일 '1Q84' 한국어판 출간이 예정돼 있어 다시 '하루키 붐'을 일으킬지 주목되고 있다.

특히 올해가 하루키의 대표작 '노르웨이 숲'(한국어판 제목 '상실의 시대')이 한국에 소개된 지 20주년이라는 점도 눈길을 끈다. '노르웨이 숲'은 최근 일본 내 판매부수 1천만부를 돌파했다.

일본 서점가에 따르면 하루키의 신작 '1Q84'은 발간 2주 만에 100만부 이상이 팔려 밀리언셀러에 올랐다. 또 소설 속에 나오는 음악 CD도 인기를 끌고 있다.

최근 국내에서는 '1Q84'의 국내 판권을 둘러싸고 사상 최고액인 15억원(약 1억1천400만엔) 소동이 벌어지는 등 화제가 되기도 했다. 결국 이 소동은 문학동네가 기존 하루키 작품을 주로 출간했던 문학과사상사를 제치고 10억 2천만원(8천만엔)에 판권을 따냄으로써 일단락됐다.

루쉰의 '아큐정전'과 조지 오웰의 '1984'을 연상시키는 제목의 '1Q84'는 1984년 일본을 무대로 헬스클럽 매니저이면서 연쇄살인을 저지르는 30대 여성 아오마에와 대학입시학원 수학강사이면서 소설가 지망생인 덴고라는 남성을 중심으로 한 연애와 폭력, 신흥 종교집단 등 다채로운 소재를 다루고 있다.

한편 소설 '노르웨이의 숲'이 한국에 소개된 지 20주년이 된다는 점도 '하루키 붐'의 재점화에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1987년 일본에서 '노르웨이의 숲'이라는 제목으로 발표된 책은 1989년 한국어 판이 문학과사상사를 통해 출간된 후 200쇄를 찍으며 스테디셀러로 자리 잡았다.

'국경의 남쪽, 태양의 서쪽' '어둠의 저편' '해변의 카프카'등 내놓은 작품마다 초대형 베스트셀러로 부각되면서 '하루키 신드롬'이라는 용어까지 만들어낸 하루키는 작품뿐만이 아니라 일상사까지도 관심거리가 되며 많은 한국 팬을 확보하고 있다.

문학동네 관계자는 "독자들의 출간에 대한 문의가 쇄도하고 있다"며 "1권은 오는 25일, 2권은 9월 8일에 나올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양운철씨 개인전 '구름, 그대로'

12~18일 서울 인사동 갤러리 '루벤'

광주시립미술관 양산동 스튜디오 입주작가 양운철씨가 12~18일까지 서울시 인사동 갤러리 루벤에서 개인전을 갖는다.

양씨는 이번 전시에서 '구름, 그대로'를 주제로 존재의 근원을 찾는 회화, 설치 작품을 선보인다.

대표작 '자라나다'는 화려한 문양의 화분 속에서 갓 싹을 틔운 작은 식물을 표현한 작품인데, 안정적인 구도와 색의 조화가 돋보인다.

인천가톨릭대 조형미술과를 졸업한 뒤 일본, 서울에서 각각 열린 '구름, 맑다'전과 'Felix-Dasein'전에 참가했다. 문의 062-510-0144.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자라나다'

코리아기독교 평신도 세계대회

27~29일 여수 은파교회

세계 한인 평신도들의 축제인 코리아기독교 평신도 세계대회가 오는 27일부터 29일까지 여수시 은파교회(고만호 목사)에서 열릴 예정이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 대표회장 엄신형 목사)와 코리아기독교평신도세계협의회(총재 서영훈, 대표회장 정연택 장로)가 주최하는 이번 대회에서는 '한민족 디아스포라의 역할'을 주제로 서영훈 전 적십자사 총재, 강영우〈사진〉 전 미국 백악관 차관보, 신호범 미국 워싱턴주 상원의원, 백영훈 산업개발원장 등이 강의한다.

코리아기독교평신도세계협의회는 1991년 제1회 세계대회를 미국 워싱턴 D.C에서 개최한 이후 매년 세계 각국에서 세계대회를 열어왔으며 이번이 17대회째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항일의병 진압 기록 '진중일지' 공개

양민학살 등 날짜별 정리

한국군대 해산에 즈음한 1907~1909년 무렵 전국적으로 의병운동이 어떻게 진행되고, 이를 일제가 어떻게 진압했는지를 생생하게 보여주는 일본군의 방대한 항일의병 진압작전 기록인 '진중일지'(陣中日誌)가 11일 공개됐다.

이 진중일지는 일본 본토에서 파견돼 전국 각지를 돌며 직접 진압작전을 수행한 일본군대가 그 활동상을 날짜별, 분 단위로 정리했으며, 의병 활동에 협력하거나 소굴이 된다는 이유로 양민을 사살했는가 하면, 사찰 전체를 소각하려 했다는 사실까지 담고 있다.

한국토지공사 산하 토지박물관(관장 심광주)은 소장 중인 이 진중일지가 일본군 보병14연대가 한국에서 '적도토벌(賊徒討伐)'을 벌인 작전 일지임을 확인됐다.

특히 이 진중일기에는 각 지역 의병장과 그 활동상에 대한 기록이 의병진압 작전지도가 50점가량 수록됐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